

# “정의를 승리하는 대한민국” 5·18 기념식 역대 최대 규모

미리보는 5·18 기념식

오늘 민주묘지서 1만여명 참여  
4·19 등 민주화 단체 대거 초청  
유가족 편지 낭독·기념공연도

9년만의 정권교체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 열리는 5·18 민주항쟁 37주년 기념식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이번 기념식은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 방식으로 진행되는가 하면 경과보고도 5·18 단체장이 직접 하는 등 규모와 성격 면에서 예년과는 차원이 다른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이번 기념식을 통해 불의에 항거한 ‘5·18 민주영령의 정신을 계승하고 정의가 승리하는 대한민국’ 건설 의지를 전명하겠다는 입장이다.

17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5·18 민주항쟁 37주년 기념식이 18일 오전 10시 광주 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5·18 유가족들을 포함한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 3·15 의거기념사업회, 4·19 혁명관련 단체 등 내외빈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다.

지난해 5·18 기념식 참석자는 3000명 수준이었다. 보훈처는 이번 기념식에 5·18 단체뿐 아니라 4·19 혁명을 비롯한 민주화운동 단체를 대거 초청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화 역사를 기념하는 장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올해 5·18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9년 만에 제창 방식으로 부르는 점도 중요한 차이점이다. 5·18이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1997년부터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까지 5·18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모든 참석자들이 제창했지만 일부 보수 진영의 반발로 2009년부터는 합창단만 부르던 원하던 참석자들만 따라 부르는 합창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후 해마다 5·18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고 5·18 기념식이 이념 갈등의 장으로 변질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번 제창 방식을 복원함으로써 논란은 일단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5·18 기념식에서는 대통령에 태극기를 흔들며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

올해 5·18 기념식은 작년에는 없었던 기념공연도 추가됐다. 약 10분 동안 3막으로 진행되는 기념공연은 5·18 희생자 유족의 편지 낭독으로 시작돼 의미를 더한다. 광주시립합창단과 가수 전인권, 권진원 씨가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이번 5·18 기념식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정의와 민주주의의 승리의 역사라는 공감



17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조화(왼쪽). 5·18 광주민주화운동 37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시민난장’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관련한 대형 그림이 길에 전시되어 시민들이 이를 바라보고 있다.



17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조화(왼쪽). 5·18 광주민주화운동 37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시민난장’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관련한 대형 그림이 길에 전시되어 시민들이 이를 바라보고 있다.

### ■ 전국 5·18민주화운동 기념 행사 (자료: 국가보훈처)

구분	행사명	주관	일시	장소	
기념식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부산기념행사위원회	18(목) 19시	민주공원 소극장	
		서울기념행사위원회	18(목) 10시	광화문 북쪽광장	
		대전기념행사위원회	18(목) 11시	대전시청	
		대구경북기념행사위원회	18(목) 19시	2·28중앙공원	
		강원기념행사위원회	18(목) 10시	강원영광 교회	
문화예술행사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주목밥 나누기 행사	(사)5·18구속부상자회	18(목)	국립5·18민주묘지
		5·18전국회화대회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20(토)	국립5·18민주묘지
		민주기사의 날 기념식 및 차량 시위 재현	(사)5·18구속부상자회	20(토)	무등경기장 ~ (舊)전남도청
		부활제	(사)5·18구속부상자회	27(토)	(舊)전남도청

대를 토대로 국민통합으로 나아가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수 전인권 씨의 5·18 기념식 참석도 국민통합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전 씨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인물이다.

전씨는 이번 기념식 무대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과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한 촛불집회에서 울려 퍼졌던 상록수를 부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무대에 올라 전 씨, ‘임을 위한 행진곡’ 작곡가인 김중률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등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행기자 galee@kwangju.co.kr

## 30개국 동포들도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른다

제37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기리는 행사가 해외 곳곳에서도 펼쳐진다.

지난 2013년부터 ‘해외 5·18 기념식 개최하기 운동’을 펼쳐온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사무총장 정광일)는 17일 “올해는 지난해 24개 도시보다 6곳이 늘어 30개 도시에서 한인회를 중심으로 기념식이 열린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휴스턴·댈러스·LA·시애틀·시카고, 캐나다 밴쿠버·토론토, 브라질 상파울루,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파라과이, 일본 도쿄·오사카, 중국 베이징·상하이·선양,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 시드니,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 한인회는 각각 현지시간으로 18일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면서 기념식을 연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몬테레이, 콜롬비아 등 한인회와 애틀랜타 호남향우회, 영국 런던 5·18기념사업회, 중국 칭다오 5·18기념식 준비위원회 등은 올해 처음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미국 워싱턴에서는 주미대사관이 직접 나서 기념식을 치를 예정이다. 행사는 노래 제창, 대통령 기념사 낭독 등 표준식순에 따라 열리고, 지역별로 문화 공연, 강연회 등을 별도로 진행한다. /연합뉴스

## “오월 광주”는 인간의 존엄과 폭력이 공존하는 시간

한강이 말하는 5·18 소설 ‘소년이 온다’와 스웨덴 동화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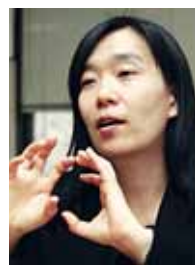
만부커상에 빛나는 광주 출신 작가 한강이 광주 5·18을 다룬 소설 ‘소년이 온다’(황비)와 집필 당시 스웨덴 동화 ‘사자왕 형제의 모험’과의 관련성, 5·18에 대한 기억을 밝혔다.

‘소년이 온다’는 5·18 당시 계엄군에 맞서다 죽음을 맞게 된 중학생 동화와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이다.

출판사 장비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37돌을 앞두고 한 작가가 지난 2월3일 ‘노르웨이 문학의 집’에서 했던 강연 전문을 16일 블로그에 공개했다.

한강은 1983년 국내 출간된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동화 ‘사자왕 형제의 모험’을 1980년에 읽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고 서두에서 밝힌다. 그러나 “오랫동안 사실과 다르게 기억하고 있던 것들을 뒤늦게 깨닫고 놀라는 때가 아마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라며 “1980년이 아니라 1983년의 여름, 아홉 살이 아니라 열두 살의 여름”이었다고 얘기했다.

‘사자왕 형제의 모험’은 연약한 소년 칼과 자유를 지키려고 악에 맞서는 사자



한강

하는 독재자 탕의 모습, 그가 조종하는 살인의 화신 카를라, 그에 맞서 연약한 사람들이 연대하는 과정이 어찌어찌인지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강은 자신의 내면에 광주의 5·18과 ‘사자왕 형제의 모험’의 유사성이 연결돼 있었던 탓에 동화를 읽을 때를 착각했다고 말했다. 한 작가는 5·18이 발발 2년 후인 1982년 소설가인 아버지 한승원이 광주에서 가져온 5·18 사진첩을 보고 큰 충격을 받는다. 1983년 이듬해 여름 “이상한 열정”으로 ‘사자왕 형제의 모험’을 읽게 된다.

“어느새 해가 저서 캄캄해진 내 방의 서늘한 벽에 기대앉아 오래 울었던 것을

기억한다. 알 수 없었다. 어떻게 그들은 그토록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가? 그들의 사랑을 둘러싼 세상은 왜 그토록 아름다우며 동시에 잔인한가?”

또한 한 작가는 ‘소년이 온다’를 쓰면서 한 글쓰기를 포기하려 했을 만큼 “내면의 투쟁을 치르고 있었다”고 고백한다. “폭력 앞에서 무언인가를 하려고 했던 연약한 몸짓들에 대해 내가 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녀는 27일 전남도청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시민군의 일기를 읽고 ‘소년이 온다’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깨달았다. 광주의 도청에 남아 있던 한 시민군의 절규가 계속 글을 쓰게 하는 힘이 되었다는 것이다. “하느님, 왜 저에게는 양심이 있어 이토록 저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한강은 “어떻게든 폭력에서 존엄으로, 그 절벽들 사이로 난 허공의 길을 가어서 나아가는 일만이 남아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옛 국군 광주병원 산책로 공사 완료...20일 개방

5·18 민주화운동의 아픔을 간직한 역사적 공간인 광주 서구 화정동 옛 국군 광주병원(5·18사적지 23호)이 10여 년만에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광주시는 17일 옛 국군광주병원의 산책로 정비공사 등을 마치고 20일 오후 2

시 개방 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개방행사는 윤장현 시장, 임우진 시구청장, 시의원, 시민 등이 참석한다.

옛 국군광주병원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고문 등으로 다친 시민을 수용해 치료하고 조사했던 곳이다. 2007

년 합평으로 이전한 뒤 2014년 국방부에서 광주시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광주시는 사업비 7억원을 들여 방치된 간부 숙소 등의 철거, 산책로와 수목 정비, 가로등과 CC-TV 등을 설치했다.

본관 등 주요 시설은 보전해 국가폭력 피해자를 치료하는 트라우마 치유센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광공인중개사**

상 가 건물

1. 쌍촌동 5층 상가건물 대200㎡ 매11,8억원(보9,500 월500 포함)
2. 월곡동 4층 상가건물 대471㎡ 매14,8억원(보1,5억 월780 포함)
3. 용봉동 4층 상가건물 대468㎡ 매11,8억원(보1,2억 월650 포함)
4. 신가동 3층 상가건물 대503㎡ 매9,3억원(보8,000 월450 포함)
5. 신창동 3층 상가건물 대1,050㎡ 매50억원(보6억 월2,000 포함)
6. 북구 우산동 5층 상가건물 대336㎡ 매18억원(보1,2억 월900 포함)
7. 월산동 6층 상가건물 대397㎡ 매17억원(보1억 월1,000 포함)
8. 서석동 4층 상가건물 대120㎡ 매4,8억원(보5,000 월180 포함)

상 가 주택

1. 신정동 3층 상가주택 대180㎡ 매8억원(보6,000 월370 포함)
2.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360㎡ 매6,8억원(보2,7억 보9,000 포함)
3.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10㎡ 매10,3억원(보3,7억 월280 포함)
4.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250㎡ 매5,9억원(보6,000 월240 포함)

공장 / 토지 / 기타

1. 용두동 북광주IC 인근 대로변 공장4동 대6,150㎡ 매58억원
2. 진도군 군내면 나리 바다조망 임야48,600㎡ 매6,6억원
3. 신가동 생산복지 담745㎡ 매3,65억원
4. 하남동 일반상업지역 대로변 대770㎡ 매23억원
5.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전1,207㎡ 매2,9억원
6. 산월동 자연녹지 택지조성완료 대290㎡ 매3,3억원
7. 장성군 남면 녹진리 1중일반주거 전2,115㎡ 매2,8억원
8. 매곡동 대광로제비방 1층 상가 주출입구코너 71㎡ 매5,2억

부동산 매물 상담 환영  
010-2572-4663 **홍창경**

**치평동 상가 매매**

- 상무나이트 옆 수림상가
- 10층 중 10층 795㎡(250평)
- 임대가(5000만/350만)
- 감정/시세 8억 7700만
- 급매 7억 7000만

**봉선동 아파트 매매**

- 봉선동 포스코 아파트
- 17층 111㎡(33평)
- 교육환경 최상
- 시세 4억 3000만
- 매매 4억 1500만

**수기동 오피스텔 매매**

- 수기동 23-2번지 제일오피스텔
- 19층 95㎡(28평)
- 임대중(400만/월 47만)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5900만

**문의 010-9203-6161**